광주 송정중학교는 14일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교내 강당에서 '5월의 사랑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에는 학생, 교사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해 '스승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제 한마음 합창 감동의 스승의 날

광주 송정중 '5월의 사랑 음악회'
주민 등 1,200여명 뜻깊은 무대

광주 송정중학교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교내 강당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5월의 사랑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촌지 수수 등의 구설수 때문에 '5월 15일은 휴업하는 날'로 인식되는 등 언제부터인가 '스승의 날'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열려 더욱 뜻이 깊다.

이날 음악회에는 송정중 관현악부 학생들을 비롯한 음악 교사, 지역 음악가 등이 출연해 클래식과 국악 공연을 펼쳐 감동을 자아냈다. 송정중 학생 950여명을 비롯, 광주시내 초·중·고교 교장 및 교사 등 1천200여명이 참석했다.

음악회는 시종 일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특히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객원지휘자로 특별 초청된 미국인 스테판 크라머씨의 피아노 독주가 시작되자 객석의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이 밖에 송정중 방과후학교에서 관현악반 학생들을 지도하는 강사진으로 구성된 피아노 4중주, 관현악 중주, 금관 5중주 등과 대형 콩쿠르 금상 출신인 이 학교 음악 교사의 가야금 독주 등이 이어졌다. 전체 음악회의 기본 반주는 송정중 관악반 학생 40여명이 맡았다.

음악 교사 출신으로 송정중에 부임한 지난 2006년부터 3년째 스승의 날 음악회를 마련하고 있는 곽대훈(56) 교장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통해 '스승의 날'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한 것 같아 뿌듯하다"며 "광주시내 많은 학교 관계자들이 방문해 벤치마킹할 뜻을 밝힌 만큼 내년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뜻깊은 스승의 날 행사가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20·전남 50여곳 스승의 날 휴업

광주·전남의 학교들은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스승의 날'을 맞이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실시된 단기방학의 여파로 휴업하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대 부설초는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퇴직 교사와 현직 교사를 초청, 초촐한 파티를 준비했다. 광주계림초도 훈화 등을 통해 '스승의 날' 의의를 설명하고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는 정도로 행사를 마친다.

입시 부담이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스승의 날'을 치른다. 광주에서는 20여개 학교가, 전남에서는 50여개 학교가 이날 휴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가장 많이 변한 곳은 광산구

광주 2만2,922개 건물 들어서
광산구 8,715개 북구 6,311개

광주에서 최근 5년 동안 가장 크게 변모한 지역은 광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의 항공사진 촬영·관독결과에 따르면 2003년 이후 5년 동안 광주 지역에는 총 2만2천922개의 건물이 새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8천715개로 가장 많았으며 북구 6천311개, 서구 4천563개, 남구 2천159개, 동구 1천174개 순이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세워진 건물 1천951개 중에서도 광산구가 849개로 가장 많았고 남구 581개, 북구 347개 등이었다.

광산구에 새로 들어선 건물이 가장 많은 것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아파트단지 건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역에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비롯해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 등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신창지구는 지난해 완공됐다.

북구도 2004년 양산1·2지구, 2007년 동림2지구가 완공 등으로 새 건축물이 증가했다.

시는 불법 건축물 등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3억8천만원을 들여 광주 전 지역에 대해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했다. 고해주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항공사진을 시민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

"정율성 출생지는 남구 양림동"

정율성음악제 주제 공모
'화합의 선율…' 최우수작

제4회 정율성음악제 주제를 공모해온 광주 정율성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는 14일 남상철(부산)씨의 '화합의 선율, 평화의 축제'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우수작에는 차재진(서울)씨가 출품한 '평화의 향연, 희망의 울림'이, 가작에는 중국인 푸징징(符晶晶·상하이)씨가 새 것을 만들고 옛 것을 흡수해 자유로운 상상을 편다는 의미로 지은 '창신(創新), 흡수(吸收), 창상(暢想)'이 뽑혔다. /정후식기자 who@

中 거주 유족 성명서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출생지와 관련해 유족들이 '광주시 남구 양림동'이라며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베이징시에 살고 있는 정 선생의 외동딸 정소제(65)씨는 지난 13일 광주시 남구청에 A4용지 9장 분량의 근거 자료와 함께 보낸 성명서에서 "아버지 정율성은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서 출생했다. 아버지와 선배 등이 쓴 글에서 그것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동구 불로동 출생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종합해 보면 탄생지가 불로동이라고 증명할 어떤 사실도 발견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기 위해 성명을 발표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율성 선생 생가터 논란은 양림동을 주장하는 남구청과 동구 불로동을 주장하는 하동정씨 종친회 간에 진행돼왔으며, 종친회는 최근 남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금지가처분을 법원에 냈었다.

정율성(1914~1976) 선생은 중국 인민해방군가인 '팔로군 행진곡'과 중국의 아리랑으로 불리는 '옌안송' 등을 작곡해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 추진을"

광주발전연 정성구 연구원
"문화산업 개발 동력으로"

애딘버러(영국·문학), 볼로냐(이탈리아·음악), 애스원(이집트·공예및 민속예술), 베를린(독일·디자인).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었다가 탈산업화로 도심이 공동화된 이후 문화와 경제의 융합을 통해 문화적 생산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한 대표적인 '창조도시'(Creative City)들이다.

유네스코(UNESCO)는 문화예술면에서 특색이 있고 문화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도시들에 분야별로 창조도시라는 칭호를 부여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지금까지 문학·음악·민속예술·디자인·요리 등 5개 분야에 9개 도시가 지정돼 있다.

광주시도 문화중심도시를 넘어 창조도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발전연구원 정성구 연구위원은 자체 간행물인 '포커스 광주' 최근호에서 '크리에이티브(Creative) 광주를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문화적 지식을 세계의 문화클러스터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문화 인프라의 확산과 문화산업 개발에 새로운 동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를 가지고 도시를 포장하는 문화도시를 넘어서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 재생은 물론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도시를 지향하자는 제안이다.

정 연구위원은 창조도시 7개 지원 분야 중 광주의 전략산업과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분야 5대 콘텐츠를 고려할 때 '민속예술'과 '미디어아트'가 가장 접근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예술가들이 광주에 올 수 있도록 창작스튜디오 건립 등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 ▲문화적·창조적 도시환경 조성 ▲창조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 창출 ▲도시 미관 및 디자인 개선 ▲크리에이티브 광주 장기 프로젝트 수립 및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